



18200 號 4 冊 57

五倫行實圖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酒禮鄉約

綸音

王若曰予聞之夫子觀於鄉而知王道之易易觀政  
在朝觀俗在野政之所及者淺俗之所得者深故善  
乎觀人之國者必先其野而後其朝肆予膺天之嘏  
恭逢 慈宮週甲期與八方臣庶共其樂尊年錫類  
之典無所不用其極而觀於朝政無可紀觀於野俗  
不維新惟予一人否德不敢比先王觀也每中夜以  
思忘寢屢興憫近俗之難矯慨初心之多負予之所  
自期豈欲如斯而止乎哉人心安則逸逸則玩玩則

縱而浪遂至沉酣豢養於積累昇平之樂而幼違蒙  
養之正長乏師受之益指拘檢爲迂詭視靡誕爲活  
計自少至老若不知天叙天秩之有典有則三杯揖  
讓固尚矣風流之篤厚亦難乎一變而至夫愛親者  
不敢惡於人敬親者不敢慢於人以其廣敬而因本  
也故虞夏商周之相承富德親爵之有殊而齒則不  
遺者蓋年之爲貴次於事親也凡今之人不畏遺年  
也故其弊也爲五品之不遜經曰先王有至德要道  
以順天下故忠可移於君順可移於長治可移於官  
傳曰人人親其親長其長而天下平廣敬因本之責

予方反求之不暇而物候窮則天根露習氣盡而真情見意者時雍日新之機迨其今乎小學一書卽學校始教之次第節目也以予寡昧尙賴先大王導迪之恩記在童習之年粗收日講之力世之子弟雖不及遍通六經或庶幾勉勉持循於做人樣子而邇來學日益渝教日益弛此書隨而束閣予爲是瞿爰命內閣之臣就訓義而攷證之且三綱二倫行實等篇爲輔治勵世之具與小學書不可偏廢釐爲一編命之曰五倫行實予又思之一日禮行風動四方惟鄉飲酒近之是禮也休老而勞農導歡而序齒明貴

賤而辨隆卑正身安國之要率是以興也粵我世  
宗盛際創行養老宴三綱行實之頒下亦在其時民  
到于今舉切親賢樂利之思而不能諉予小子其敢  
不修述焉然鄉約之於化民成俗亦易爲力朱夫子  
蓋嘗月朝讀約三代之制如復可見予故曰因今之  
民變古之俗被之以仁義示之以本實鄉約之效不  
差於鄉飲酒此規亦不可不講而明之機務之暇彙  
成鄉飲儀式鄉約條例欲其委曲周摯文質俱備偕  
我同胞之民油然而起感肅然知序苟使是舉不歸於  
徒法徒言則何頑之敢梗何愚之不明乎咨爾有衆

母侮古訓母迂予言俛焉孳孳惟茲飲茲約是講是  
遵其君子若生三古而秉周禮其小人若捧乘矢而  
游矍圃一切知菽粟可去而親親長長之不可斯須  
去以爲人乎何暇他求卽此而民志壹世教靖予與  
爾有衆共享无疆之祚以對越天地之耿光以丕承  
祖宗之謨烈尙克時忱其永有賴觀乎朝野彬彬改  
觀則受豐福而享勳力其在斯乎其在斯乎故曰老  
老而民興孝又曰老吾老以及人之老值三元之嘉  
會祝萬壽於慈宮仰瞻韶顏喜騰難老推而廣之  
休寧羣老羣老之休且寧顧不係於豐年之多黍多

行集卷之三  
稔乎故勞農爲休老之本四日得辛則熟十日得辛則稔熟旣驗於昨歲稔可占於今年天以錫我康功我亦勤茲田功後志之應庶可質諸歲歲年年如昨如今以至萬斯年無斃農夫之慶人子之慶也人子之慶朝廷之慶也

上之二十一年正月初一日



五倫行實圖序

上之二十有一年丁巳月正元日誕誥八方以休老  
勞農之義尋以鄉飲酒鄉約條例士冠昏儀釐爲一  
編又教若曰我朝儀物之備隆自我 英陵盛際

聖神相承治教休明而三綱二倫之書後先彙成列  
于學官爲化民成俗之本今欲講行鄉禮宜自二書  
而表章之乃命其書曰五倫行實以臣晚秀與聞是

役俾爲之序

臣

謹拜手稽首言曰

臣

聞禮也者序也

序也者倫叙也品秩也叙之以君臣父子兄弟夫婦  
朋友之倫秩之以尊卑貴賤等級隆殺之品敬爲主

而和爲用用之朝廷鄉里閨門之中上下莫不和敬  
而三物之教興二南之化行垂而爲天下則立而爲  
萬世法恭惟我 殿下孝冠百王道接千聖明於人  
倫之至察於庶物之品推躬行心得之餘懋時敏日  
躋之工治必師古事必率舊百度惟貞兆民允協然  
以大禹不自假之衷常有文王如未見之歎丕惟曰  
使斯民不得爲堯舜之民時予之責也亦惟曰使斯  
世不得爲唐虞之世時予之責也旣又曰咨不遜不  
親勉哉敷教此乃我 殿下所以命臣等潤色而臣  
等所以承命考校者也而其爲書上撫純行姱節旁

搜卓烈懿範傳以記之繪以象之詩以詠之贊以褒  
之使匹夫匹婦一開卷一涉目油然起感怵然興惕  
皆有以知其爲臣忠爲子孝爲婦貞長其長友其友  
之爲性分之所固有職分之所當然不待司徒典樂  
之屬誘掖薰陶之功賢者俯而就之愚者跂以及之  
此又我 聖祖所以創命哀輯而我 殿下所以修  
述闡明者也 臣等管蠡何敢贊一辭於其間哉書曰  
天叙有典勅我五典五惇哉天秩有禮自我五禮五  
庸哉同寅協恭和衷哉易之繫曰觀其會通以行其  
典禮推而行之存乎道不言而信存乎德行斯民也

堯舜之民也斯世也唐虞之世也唐虞之教行于斯  
世而堯舜之治及於斯民在 殿下注措施爲之動  
合堯舜唐虞臣敢書此以備摯御之箴是歲孟夏嘉  
善大夫行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  
撰官 奎章閣直提學知製教臣李晚秀奉教謹序

三綱行實圖原序

天下之達道五而三綱居其首實經綸之大法而萬  
化之本源也若稽諸古帝舜慎徽五典成湯肇修人  
紀周家重民五教而賓興三物帝王爲治之先務可  
知也已宣德辛亥夏我主上殿下命近臣若曰三  
代之治皆所以明人倫也後世教化陵夷百姓不親  
君臣父子夫婦之大倫率皆昧於所性而常失於薄  
間有卓行高節不爲習俗所移而聳人觀聽者亦多  
予欲使其特異者作爲圖贊頒諸中外庶幾愚夫  
愚婦皆得易以觀感而興起則亦化民成俗之一道

也乃命集賢殿副提學臣 僕循掌編摩之事於是自

中國以至我東方古今書傳所載靡不蒐閱得孝子

忠臣烈女之卓然可述者合百有十人圖形於前紀

實於後而并系以詩孝子則謹錄 太宗文皇帝所

賜孝順事實之詩兼取臣 高祖臣 溥所撰孝行錄中

名儒李齊賢之贊其餘則令輔臣分撰忠臣烈女之

詩亦令文臣分製編訖賜名三綱行實圖令鑄字所

鈐梓永傳爰命臣 採序其卷端臣 採竊惟君親夫婦

之倫忠孝節義之道是乃降衷秉彝人人所同窮天

地之始而俱生極天地之終而罔墜不以堯舜之仁

而有餘不以桀紂之暴而不足然先王之時五典克  
從民用和睦而比屋可封三代以後治日常少而亂  
賊之徒接跡於世者良由君上導養之如何耳今我  
主上殿下以神聖之資盡君師之道功成治定萬目  
畢張而以扶植綱常維持世道爲本凡有關於名教  
者無不講究商確著爲彝典所以化民於躬行心得  
之餘者旣極其至猶慮興起之方有所未盡乃爲此  
書廣布民間使無賢愚貴賤孩童婦女皆有以樂觀  
而習聞披玩其圖以想形容諷誄其詩以體情性莫  
不歆羨歎慕勸勉激勵以感發其同然之善心而盡

其職分之當爲矣蓋與帝王惇典敷教之義同一揆而條理有加密焉由是民風丕變治道益隆家盡孝順之子國皆忠蓋之臣南陔白華之什漢廣汝墳之詩將繼作於委巷之間王化之美當無讓於二南而王業之固實永傳於萬世後之君子益體宸衷服膺敬守於無窮豈不韙歟宣德七年六月奉列大夫集賢殿應教藝文館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臣權採奉教序



三綱行實圖原跋

三綱行實圖一編卽我世宗朝刊布民間以爲明

人倫敦教化之一助者也蓋生民彝倫不出於此三者能盡其道則爲聖爲賢不能者人不得爲人故先王教民莫不以是爲本此編之行已三百有餘年則今日吾民之能子而孝臣而忠夫和婦順不陷於禽獸夷狄者未必非此編有以觀感之也其爲助豈少也哉凡民之生俱有秉彝雖甚頑難化者苟見古人至行感人處則未嘗不戚然動心或能翻然悟決然改復爲善人君子者有之此編所圖悉皆古人之至

性特行而又畱詩以係其末則凡觀其圖詠其詩者苟有人性其孰不觀感而興起也此當日聖祖之所以特命刊布者也余於昨年謫此道見民俗猶未甚淳心竊慨然矣及爲方伯意欲廣布此圖以助宣化之方而本道舊無此板遂求得一本募遊手刊出而顧其舊譯諺書語甚簡難解又皆增刪改翻使觀者雖愚夫愚婦皆得瞭然易知仍分布一道冀得以少補風化之萬一噫古語曰以心教者從以言教者訟爲上者苟無躬行之實顧安得化其下哉今余此圖之刊行非以謂化民之本專在於是爲政者亦不

可不知此意也歲丙午春行平安道觀察使兼都巡  
察使尹憲柱謹跋



二倫行實圖原序

天生烝民有物有則該而目之爲五倫撮而揭之爲  
三綱皆根於人心之所固有天理之所當然其曰倫  
曰綱非有二也 本朝三綱行實之書旣廣布中外  
人人皆知忠臣孝子烈婦之行爲可仰也莫不感激  
奮勵以興起其善心獨於長幼朋友二倫未之見焉  
今慶尙道觀察使金公諱安國嘗在政院入侍經幄  
請撰二倫行實添續三綱以備觀感 上可之下禮  
曹令設局撰進命未及行而公出按于南首屬前司  
譯院正曹仲撰集歷代諸賢處長幼交朋友其行蹟

可爲師法者得若干人於兄弟圖附宗族於朋友圖  
附師生紀事圖贊諺譯悉倣三綱行實刊于金山郡  
請余爲序余受而讀之爲之言曰書曰立愛惟親立  
敬惟長始于家邦終于四海曾子曰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蓋敬長所以廣其悌也取友所以輔其德  
也將使一國之人人人興於悌以敬其長則風俗其  
不厚乎人人取其友以輔其德則善人其不衆乎風  
俗厚則上下安善人衆則治道進然則是書自當與  
三綱行實並行於世爲 聖朝教化之基本豈不美  
歟恭惟我 主上殿下聖智天縱日與賢士大夫討

論經史講廟治道莫不以教化爲致治之先務公能  
上體聖意賦政之初汲汲焉編輯是書刊行州里以  
扶植彝倫爲化民之本而躬率礪師生以考其德業  
旁搜孝行貞烈之卓異者聞于 上而旌表之又令  
慶州安東等五邑刊書籍之有關於治道者凡十一  
其曰童蒙須知正蒙養也曰口訣小學培根本也曰  
三綱二倫行實明人倫也曰性理大全崇正學也曰  
諺解正俗諺解呂氏鄉約正鄉俗也曰諺解農書蠶  
書敦本業也曰諺解瘡疹方辟瘟方救夭札也此雖  
未足以盡公之善而然因此可以見公之學問抱負

大有以異於人也噫世之觀是書者其皆以公之心  
爲心勉之哉正德戊寅三月晉川姜渾書于晉之東  
臯村舍



奉

教校閱

大匡輔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原任 奎章閣

直提學臣李秉模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

事監春秋館事原任 奎章閣提學臣尹著東

奉

教監印

嘉善大夫行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春

秋館修撰官成均館大司成 奎章閣直提學知

製臣教臣李晚秀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奎章閣檢校待教

知製臣教臣沈象奎

內閣講製抄 啓文臣朝奉大夫行議政府檢詳

兼春秋館記注官南學教授臣金近淳

內閣講製抄 啓文臣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

果臣申絢

內閣講製抄 啓文臣通善郎行藝文館檢閱兼

春秋館記事官臣吳泰曾

內閣講製抄 啓文臣務功郎行藝文館檢閱兼

春秋館記事官

臣

金履永

內閣講製抄

啓文臣秉節校尉忠武衛副司正

臣曹錫中

內閣講製抄

啓文臣秉節校尉忠武衛副司正

臣洪奭周



五倫行實圖卷第一目錄

孝子

閔損單衣

子路負米

臯魚道哭

陳氏養姑

江革巨孝

薛包洒掃

孝娥抱屍

黃香扇枕

丁蘭刻木

董永貸錢

王裒廢詩

孟宗泣竹

王祥剖冰

許孜埋獸

王延躍魚

楊香搯虎

潘綜救父

黔婁嘗糞

叔謙訪藥

吉玃代父

不害捧屍

王崇止雹

孝肅圖像

盧操順母

孟熙得金

徐積篤行

吳二免禍

王薦益壽

劉氏孝姑

婁伯捕虎

自強伏塚

石珍斷指

殷保感烏

閔損單衣

魯列國



閔損字子騫孔子弟子早喪母父娶後妻生二子母  
嫉損所生子衣棉絮衣損以蘆花絮絮父冬月令損御  
車體寒失靴父察知之欲遣後妻損啓父曰母在一  
子寒母去三子單父善其言而止母亦感悔遂成慈  
母

詩身衣蘆花不禦寒隆冬寧使一身單仍將好語  
回嚴父子得團圓母得安 孝哉閔損世稱賢德  
行由來萬古傳繼母一朝能感悟從茲慈愛意無

偏

贊後母不慈獨厚己兄弟溫兄凍蘆絮非棉父將



逐母跪白于前母今在此一子獨寒若令母去三  
子俱單父感而止孝乎閔子

민손의 조는 조 건이니 공조 데 지라 일즉 어머니 죽  
고 아버지 후처를 취하여 두 아들을 낳으니 손의 계  
외손을 의위하여 나훈 아들이란 오서 소을 두어  
남히고 손이란 큰 품을 두어 남히더니 겨을에 그  
아버지 손으로 하여곰 술 위를 몰시치 위를 혁을 노  
하브린디 아버지 술 퍼 알고 후처를 배티고 처하여  
늘손이 술와 큰 오디 어머니 시면 훈 아들이 칭고  
어미 업스면 세 아들이 치우리이다 훈대 아버지

말을어디이너겨아니베티나계되또한가담하오  
고뉘웃쳐드덕여주의흥노어미되니라

子路負米

魯列國



卷一 孝丁

仲由字子路孔子弟子事親至孝家貧食藜藿之食  
為親負米於百里之外親歿之後南遊於楚從車百  
乘積粟萬鍾累茵而坐列鼎而食乃歎曰雖欲食藜  
藿之食為親負米不可得也孔子聞之曰由也可謂  
生事盡力死事盡思者也

詩家貧藜藿僅能充負米供親困苦中當日孔門  
稱盡孝仲由千古播高風 一朝列鼎累重茵富  
貴終能念賤貧生事死思惟盡孝聖門嘉譽屬賢  
人

중유의는는되니공는데지라어바이섬기물

지효로 할시 짐이가난 효야 누름음식을 먹으며  
어버이를 위 효야 빅너 밧귀 밧을 쳐오더너 어버  
이 죽은 후의 남으로 초나라 희 놀시 조 손슬 위 일  
빅이 오만 종곡식을 빠 흐며 자기를 곱으로 안즈  
며 솟출 버려 먹을 처이에 탄식하여 온오더 비독  
누름을 먹으며 어버이 위 효야 밧을 지략 효나가  
히 었디 못 효리로 다 효대 공지 드르시고 온오사  
더 조로 누는가 히 날오더 살아셔 섬기 매 힘을 나  
고 죽은 후 섬기 매 스모 효를 다 효야 라로 사

五倫不實圖

旱魚道哭  
楚列國



孔子出行聞有哭聲甚悲至則臯魚也被褐擁劍哭  
於路左孔子下車而問其故對曰吾少好學周流天  
下而吾親死夫樹欲靜而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  
往而不可返者年也逝而不可追者親也吾於是辭  
矣立哭而死於是孔子之門人歸養親者一十三人  
贊臯魚銜恤自訟自傷親不待養如何彼蒼泣盡  
眼枯立死路傍嗟嗟卓行見重素王

공지나가실시우름소리심히슬프드르시고  
다드라보시니고어란사람이라보오슬넘고칼  
을가지고길로의셔을거느공지슬위에느리사

그연고물므로 신대덕흥여골오덕적머셔흥문  
 을도화흥여턴하에두로든니터니어버이죽은  
 디라므릇남기고요흥고져흥여도브람이그치  
 디아니흥고즈식이효양흥고져흥여도어버이  
 기드리디아니흥느니가고도라오디아니흥느  
 거신히요죽으매쓰로디못흥리느어버이니내  
 여괴셔하직흥느이다흥고셔셔우다가죽으니  
 이에공즈테지도라가어버이봉양흥느재열세  
 사름이러라



陳氏養姑  
漢



陳孝婦年十六而嫁其夫當戍且行屬曰我生死未  
 可知幸有老母無他兄弟備養吾不遠汝肯養吾母  
 乎婦曰諾夫果死不還婦養姑不衰終無嫁意其父  
 母將取而嫁之婦曰夫去時屬妾以養老母妾既許  
 諾養人老母而不能卒許人以諾而不能信將何以  
 立於世欲自殺父母懼而不敢嫁養姑二十八年姑  
 終盡賣田宅葬之號曰孝婦

贊良人遠征屬我老母身歿不歸言在敢負之死  
 靡他養專葬厚萬世稱之曰陳孝婦

진효부는 한적 사람이 나나히 십육세에 서방마

자그지아비슈자리를당흥여쟁춧힝힝시당부  
흥여즈오디내스싱을가히아디못홀디라다힝  
이노되겨시되다른봉양홀형테업스니버도라  
오디못흥여도그디즐겨내노모를봉양홀소냐  
효뵈즈오디그리흥리이다지아비과연죽고도  
라오디못흥니효뵈식어미봉양흥기틀게얼너  
아니흥여모춤내리가홀뜻이업스니그부외장  
춧드려가리가흥려흥대효뵈즈오디지아비갈  
제내게노모를맛디거늘내이의허람은디라놈  
의노모를봉양흥다가능히못디못흥며남의게

허락하고 능히 밋브게 못하면 엇디 세상의 서러  
오하고 스스로 죽고져 하니 부외 두려 위감히 리  
가 하니 못하니 식어미를 스믈여 닮히를 봉양하  
다가 식어미 죽거늘 밧과 집을 다 팔라 장수 내  
니 일음을 요뵈라 하더라

江革巨孝

漢



江革臨淄人少失父遭天下亂負母逃難常采拾以爲養數遇賊或劫欲將去輒涕泣求哀言有老母辭氣愿歎有足感動人者賊不忍害或指避兵之方遂得俱全於難窮貧裸跣行傭以供母便身之物莫不畢給建武末與母歸鄉里每至歲時縣當案比革以母老不欲搖動自在轅中挽車不用牛馬鄉里稱曰江巨孝母終常寢伏冢廬服竟不忍除郡守遣丞掾釋服元和中詔以穀千斛賜之常以八月長吏存問致羊酒

詩至孝由來動鬼神雖逢強暴亦全身到頭母子

俱無恙天地終應福善人 平生行孝動朝廷褒

錫恩隆沐顯榮青史獨稱江巨孝古今誰復可齊

名

贊江革負母逃難異鄉遇賊陳欸賊不忍傷盡心  
於孝備養於傭便身何物有不畢供

강혁은한나라님척사름이니어려셔아비를일  
코란리를만나어미를업고피란하여미양노를  
을키고드른거슬주어공양홀시스로도적을만  
나혹겁박하여잡아가려하면문득울며비되노  
되이셔라고말슴이공순하고근절하여사름

을감동하니 도적이 차마 해티 못히고 후피란 할  
곳을 마르치니 인하여 난리 등에 모지다 보전하  
디라 가난하고 궁박하여 몸과 발을 벗고 고공이  
되여 어머니를 공양하여 미몸에 편하거 손아니  
족하거 시업스디라 건무 한광무대  
년호라 말에 어머니로더

브리고 향에도 라와 미양세 시에 관가의 셔벽성  
점고 흘시혁이 어머니 늙으므로 요동티 아니케하  
여 손조술위를 미리 마쇼의 게메 오디 아니하니  
향리 사름이 일쿠르디 강거 효 거효는  
큰화라 라하더니 어  
미죽으매 미양무덤것히 녀막히고 거상을 모친



되 상복을 차마 벗디 못흐니 군췌승연 군슈아리 을

보내여 상복을 벗겼더니 원화 한장테대 등에도셔

흐샤곡식천석을주시고 미양팔월의당니 원 이

로 존문흐고 양과 술을 주라흐시다

薛包洒掃

漢



薛包汝南人父娶後妻憎包分出之包日夜號泣不去至被毆扑不得已廬于舍外早入洒掃父怒又逐之乃廬于里門晨昏不廢積歲餘父母慚而還之父母亡弟求分財異居包不能止奴婢引老者曰與我共事久若不能使也田廬取荒頓者曰少時所治意所戀也器物取朽敗者曰素所服食身口所安也弟數破其產輒復賑給安帝徵拜侍中

**詩**不得親心涕泗濡晨昏洒掃守門閭積誠感得親顏悅父子和諧遂厥初 中分財產讓田廬孝義能全世罕如自是佳名聞闕下侍中有命召公

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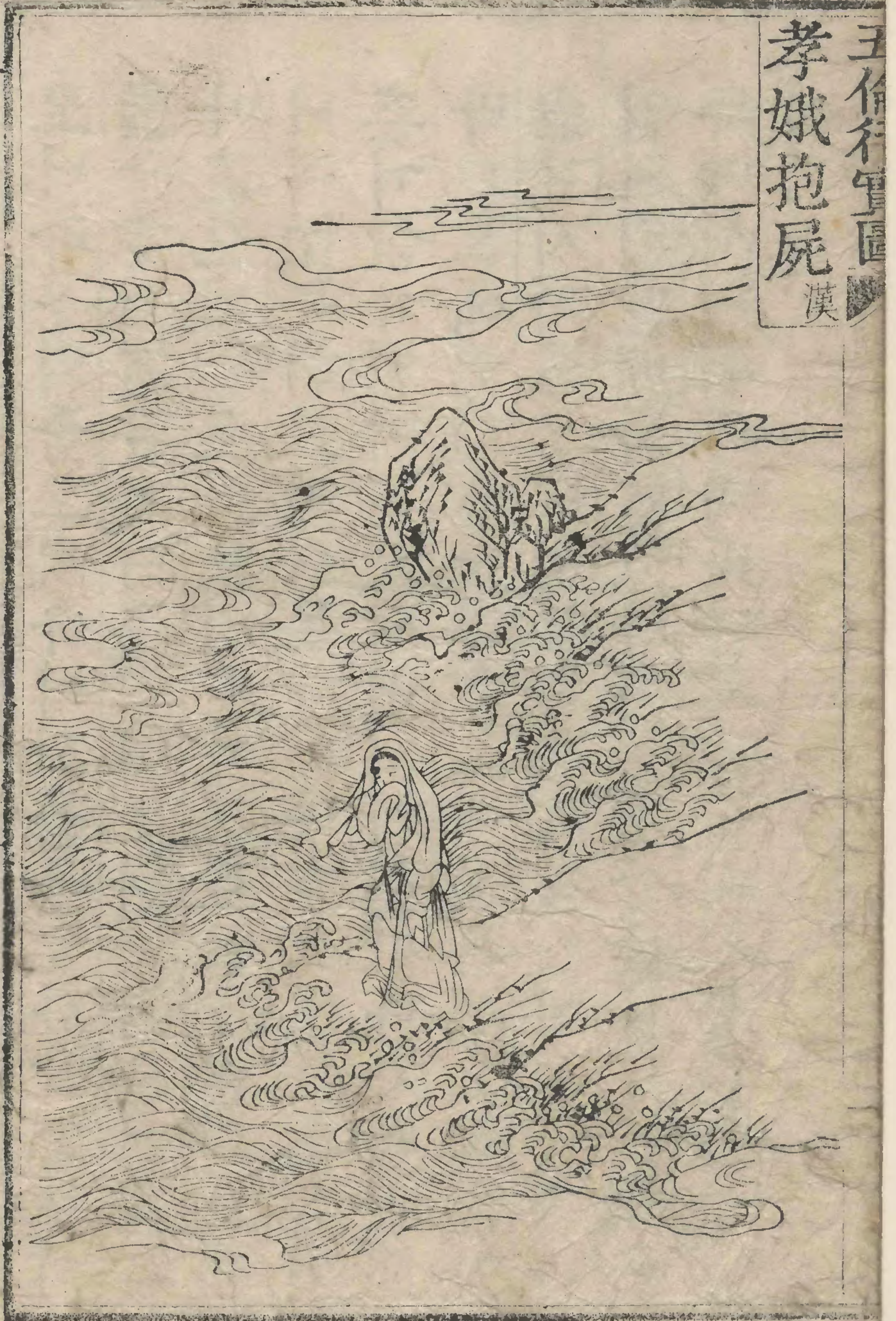
贊父兮憎兒多因繼室兒若至誠將悔其失包也  
被毆未忍遠出慚而還之終始如一

설포는 한 나라 여남 사람이니 아버지 후처를 취하  
매포를 먹워하여 내티거늘 뱀뱃으로 부르지  
저울며 가디 아니하더니 매맛기에 나르러는 마  
디 못하여 집밖의 막을 의지하고 이셔 일즉 이 드  
러와 쓰레 딜흔대 아버지 하하여 소구축하거늘  
문예 막을 의지하고 신흔 부모의 도색으  
로 보는 데라 을 폐티아니  
하여 하히 남죽이 되니 부모 밧그려 위도로 드려

오니라부되죽으매아이지름을논화각각살기  
를구하거늘말니디못하여노비논늑은거슬잡  
아곧오디날로더브리훈가지로일하연디오래  
너너논능히브리디못하리라하고밧과집은거  
튼거슬가지며곧오디내져머실새다소리던배  
라마음에권련하노라하고괴물은석고상하거  
슬가지며곧오디내본디쓰고먹던거시라몸과  
입의편하배라하고아이조조가산을파하매문  
득다시너워주더라안황테블러시똥벼슬을하  
이시다

孝娥抱屍

漢



孝女曹娥者會稽人父盱爲巫祝漢安二年五月五日於縣江泝濤迎婆娑神值江水大發而遂溺死不得其屍娥年十四乃沿江號哭晝夜不絕聲旬有七日遂投江而死抱父屍而出後吏民改葬樹碑焉

贊孝娥姓曹父溺驚濤娥年十四晝夜哀號聲不暫停旬又七日投江抱屍經宿以出誠貫穹壤淚溢滄浪黃絹妙筆萬世流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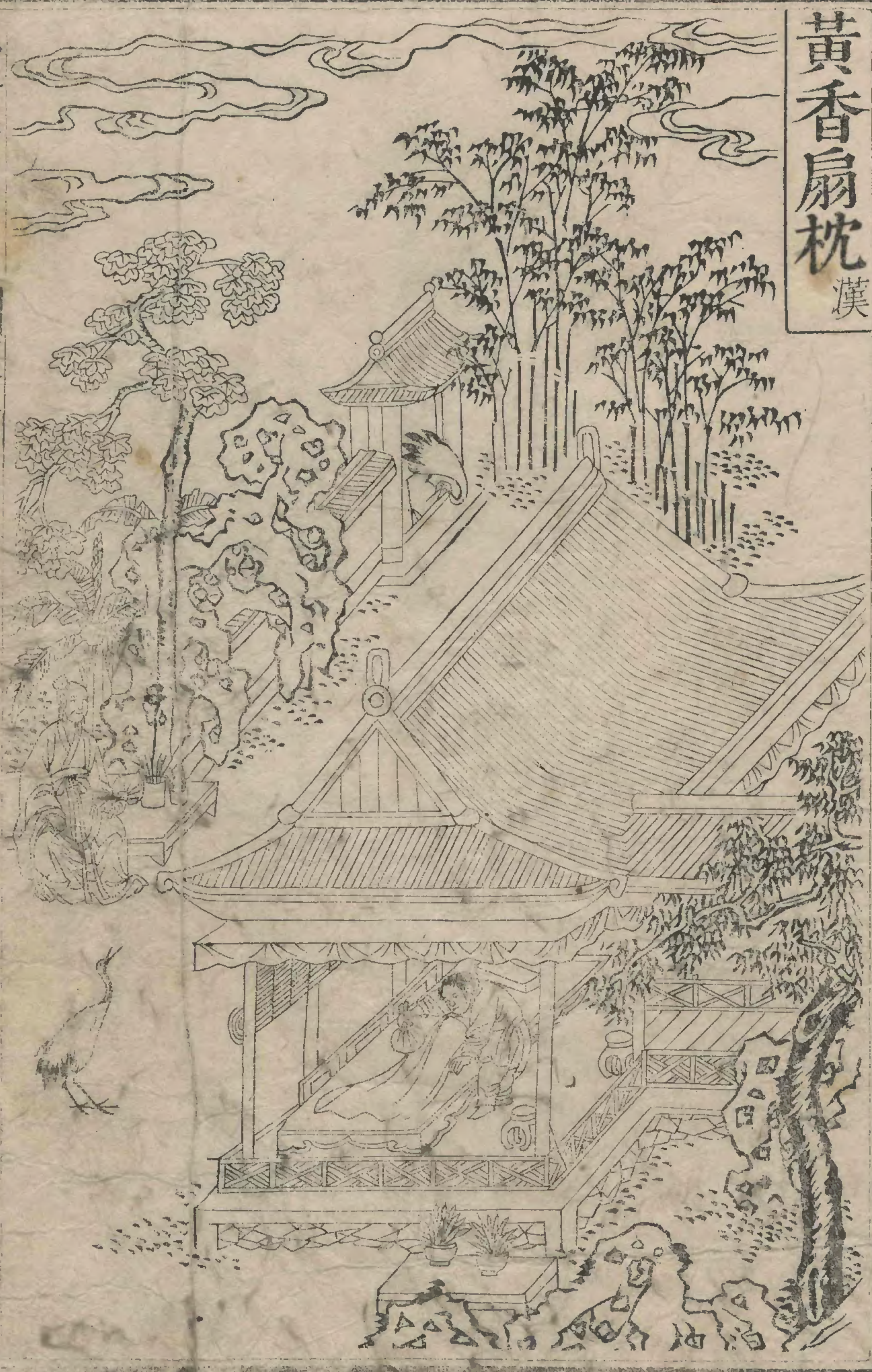
효녀 조아는 한나라 회계사 룬이 니 아버 무당이 되어 오월 오일에 강마의 셔과 소신 물신령이라 을 마즐

시마 참강물이 탕일하 여 싸져 죽어 그 죽임을 었

디 못흐니 이새에 조아의 나히 십스 세라 강마으  
로 든니며 브르지져 울어 밤낮으로 소리를 굿치  
디 아니흐더니 열니레 만의 물의 새져 죽어 아빅  
죽음을 안고 물우히 쓰니 후에 아전과 빅성이 고  
쳐 장스흐고 비를 세오다



黃香扇枕  
漢



二十四孝圖  
卷一  
孝子

黃香江夏人年九歲失母思慕憔悴殆不免喪鄉人稱其孝獨養其父躬執勤苦夏則扇枕席冬則以身溫被太守劉護表而異之自是名聞於世後官累遷至尚書令至子瓊及孫皆貴顯

**詩**黃香行孝自髫年扇枕溫衾世共傳寒暑不令親體受誠心一念出天然江夏黃童志異常當時已道世無雙累官直至尚書令孝感能令後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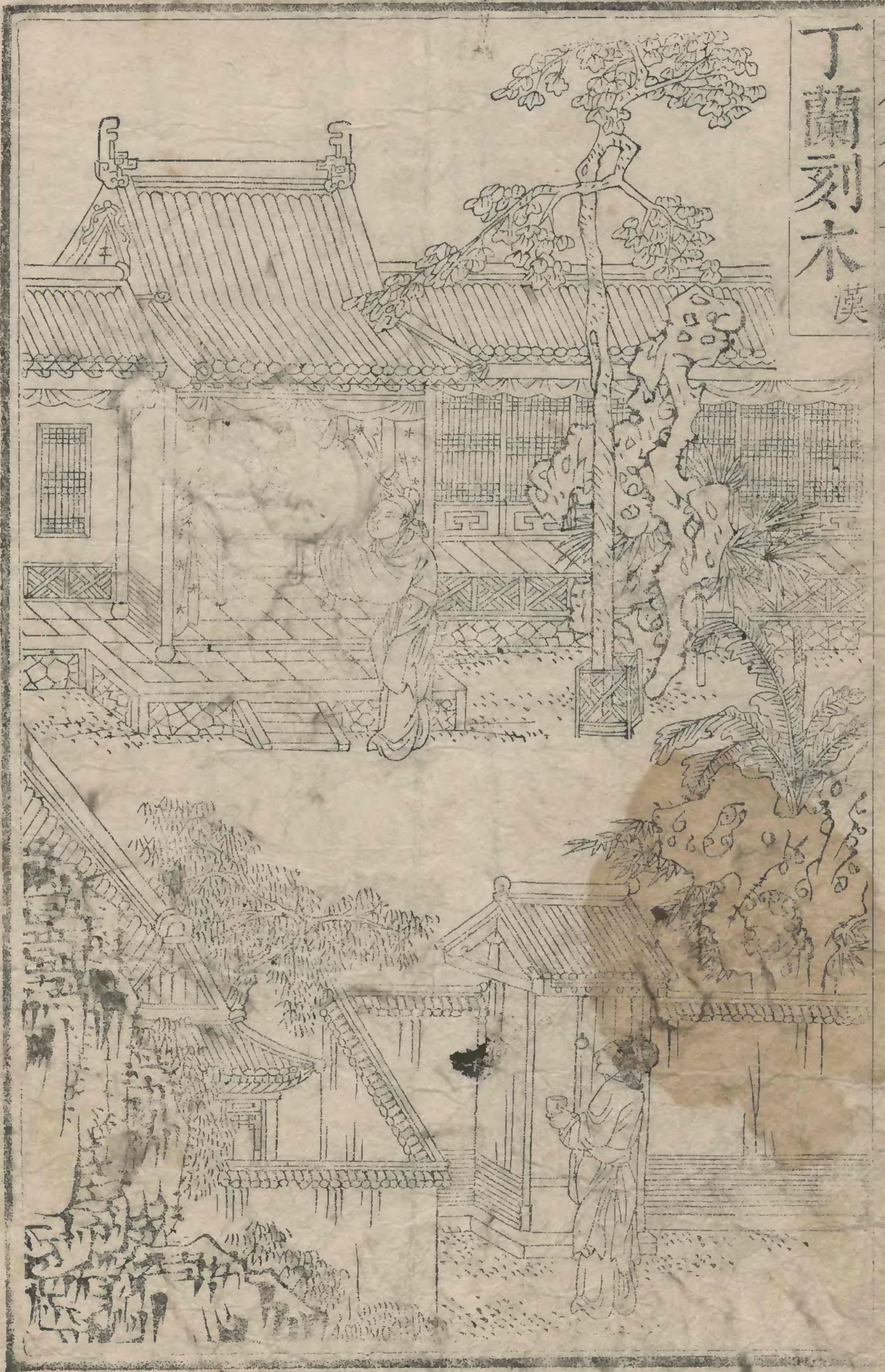
昌

황향은 한나라 강하 사람이니 나히구세에 어머니를 일코소 모호고 초혜하여 거의 죽게 되니 향이

사람이 그 효성을 일갚아 더라 흠으로 그 아버지를 봉양  
홀시 몸소 근고함 붙잡아 여음이면 베풀어와 자리  
에 부치 달고 겨을이면 몸으로 버너 붙을도스  
헉게 하니 태쉬 나라히 주문함 여일로 보더 세상  
에 일흠난 디라 후에 벼슬이 여러 번 올과 상셔령  
에 나르 고 아들 과 손 지 다 귀히 되니라

丁蘭刻木

漢



丁蘭河內人少喪考妣不及供養乃刻木爲親形像  
事之如生朝夕定省後鄰人張叔妻從蘭妻有所借  
蘭妻跪拜木像木像不悅不以借之張叔醉罵木像  
以杖敲其頭蘭還卽奮劍殺張叔吏捕蘭蘭辭木像  
去木像見蘭爲之垂淚郡縣嘉其至孝通於神明奏  
之詔圖其形像

詩刻木爲親出至情晨昏定省似平生恍然容色  
能相接感應由來在一誠 孝思精徹杳冥間木  
像能爲戚戚顏當代圖形旌至行誰人不道漢丁

蘭

贊哀哀丁蘭早喪慈顏眾人皆有我獨無母刻木  
肖形事之猶生晨昏定省以盡誠敬噫彼世人不  
有其親生不能養能不泚頰

丁寧은한나라하니사름이니일즉부모를일히  
미처공양하니못하니이에남글사겨어버이얼  
골을민드라섬기기를성시곳티하여도석의덩

성 부모가보  
임노배라 하니후에니옷사름장숙의체난의

쳐드려빌리라하니노배잇거늘난의체사러목상  
귀절하여고흔대목상이깃거아니하니거늘빌리  
디아니하니엇더니장숙이대취하여목상을사지

고막대로그마리틀티거늑난이도라와듯고칼  
을싸혀장숙을죽이니관가의셔난을잡아갈시  
난이목상을하직훈대목상이난을보고눈물을  
드리으니군현이그지극훈효성이신명에통훈  
물아름다이너겨나라히주문하니묘셔훈샤그  
얼골을그려올나라훈시다

董永貸錢

漢





董永千乘人父亡無以葬乃從人貸錢一萬曰後若無錢還當以身作奴葬畢將往爲奴於路忽逢一婦人求爲妻永曰今貧若是身復爲奴何敢屈夫人爲妻婦人曰願爲君婦不恥貧賤永遂將婦人至錢主問永妻曰何能妻曰能織主曰織絹三百匹卽放於是一月之內三百匹絹足主驚遂放二人而去行至舊相逢處謂永曰我天之織女感君至孝天使我爲君償債語訖騰空而去

詩得錢一萬葬其親身擬爲傭報主人豈料孝心終感格天教織女助身貧 孝念終能感上天爲

教織女助還錢一月足縑三百匹飄然分手上雲

煙

贊纒纒孝子千乘董氏傭力以養債身以葬路逢  
美婦為妻償負日織縑帛一月三百償畢告語我  
乃織女天遣償汝乘雲而去

동영은한나라천승사름이니아비죽으며장스  
홀길히업서사름의게돈일만을싸고곧오디후  
의만일돈을갚디못흐면맛당이몸으로버쥬이  
되리라흐엇더니장스를미처매장츠가셔쥬이  
되려홀시길히셔홀연이흔부인을만나니원호

여체되여디라흐거늘영이곧오디이제가난흐  
미이러듯흐고몸이또훈종이되여시니엇디감  
히그디를굴흐여쳐를삼으리오부인이곧오디  
그디지어미되물원흐고빈천흐문붓그려아니  
흐리라영이드디여부인을드리고가니돈님재  
영의쳐드려무려곧오디므슴지죄잇느뇨체곧  
오디뵈뵈기를능히흐느이다돈님재곧오디김  
삼빅필을뵈면즉시노흐리라흐거늘이에훈들  
닉에삼빅필김을뵈는다라돈님재놀나두사름  
을노하보내니헉흐여네서로만나던곳에너르

러영드려느러온오디나느하늘직네라하늘이  
그디지호를감동하샤날로하여곰그디를위하  
여빛을감게하시니라하고말이므차매공동하  
로을나가더라

王裒廢詩

魏三國



王裒城陽人父儀爲魏安東將軍司馬昭司馬東關之敗昭問曰誰任其咎儀對曰責在元帥昭怒曰欲委罪於孤邪引出斬之裒痛父非命隱居教授三徵七辟皆不就終身未嘗西向而坐以示不臣於晉廬於墓側朝夕常至墓所拜跽攀栢悲號涕淚著樹樹爲之枯母性畏雷母歿每雷輒到墓曰裒在此讀詩至哀哀父母生我劬勞未嘗不三復流涕門人受業者並廢蓼莪篇

詩王裒爲孝自來無淚灑泉臺栢盡枯父死獨傷非正命終身不仕只閒居 怕聽雷聲母性然每

因雷動繞墳前  
蓼莪未誦先流涕  
遂使門人廢此  
篇

贊偉元喪父不應徵  
辟朝夕悲號淚灑墓  
栢每讀蓼莪三復涕  
洟門人不忍遂廢此  
詩

왕부논위나라성양사  
름아니아비일흙은의  
라의안동장군스마쇼  
의막해되엇더니동  
관빠흙에패흐매쇠  
무리존오디뉘그  
죄를당홀고흐대  
의디흐여존오디  
척망이웃듬당슈  
의잇느니라쇠노  
흐여존오디패  
군흐죄를내게  
미루고저흐  
느다흐고잡아  
내여버히너  
뵈아비비명  
에죽으

물설위호여숨어이셔글ᄃ르치더니도당의셔  
여러번브르시되나디아니호고종신토록셔향  
호여안벼아니호여던나라에신편디아니호는  
뜻을뵈고무덤것히녀막호여도석으로무덤의  
너르러비레호며жат남글밧들고슬피브르지셔  
눈물이남기브드치니남기ᄃ르터라어미성품  
이우레를무셔위호터니어미죽으매미양우레  
호면문득무덤의너르러올오디뵈여귀잇노이  
다호터라시를넓을시의부모여날나키를슈  
고로이호샷다호는디너르러는여러번다시외



와 눈물아니 흘릴적 이 업스니 문하의 글비 호기  
사람이 죽아 편을 폐하고 늙디 아니 하더라

孟宗泣竹

吳三國



孟宗江夏人性至孝母年老病篤冬節將至思笋食  
時地凍無笋宗入竹林哀泣有頃地上出笋數莖持  
歸作羹供母食畢病愈人皆以爲至孝所感

**詩**孝行當年說孟宗慈親思笋逼寒冬竹林灑淚  
哀號處數笋須臾出地中 母因食笋病全蘇天

理昭昭信不誣惟以此心存孝念幽冥自有鬼神  
扶

**贊**昔有賢士孟姓宗名冬寒母病思啜笋羹號天  
繞竹泣涕縱橫龍雛包籜雪裏羅生採歸供膳疾  
乃瘳平精誠旣切感應孔明

밍종은오나라강하사름이니효행이지극흔디  
라어미나히늘고병이동하여겨을에득순을먹  
고져흐되싸히어러득순이업느니라종이대수  
플의드러가슬피우니이우하여싸우히득순두  
어즐기나거늘가지고도와국을민드라어미  
게드린대먹기를다흐매병이나으니사름이다  
닐오디지극흔요성의감동흔배라흐더라

王祥剖冰  
晉



王祥琅琊人蚤喪母繼母朱氏不慈數譖之由是失  
愛於父每使掃除牛下祥愈恭謹父母有疾衣不解  
帶湯藥必親嘗母嘗欲生魚時天寒冰凍祥解衣將  
剖冰求之冰忽自解雙鯉躍出母又思黃雀炙復有  
黃雀數十飛入其幕有丹柰結實母命守之每風雨  
輒抱樹而泣母歿居喪毀瘁杖而後起後仕於朝官  
至三公

**詩**王祥誠孝真堪羨承順親顏志不回不獨剖冰  
雙鯉出還看黃雀自飛來 鄉里驚嗟孝感深皇  
天報應表純心白頭重作三公貴行訪尤爲世所

欽

贊晉有王祥生魚母嗜天寒川凍網釣難致解衣  
臥冰自躍雙鯉懇懇孝誠奚止此耳抱柰夜號羅  
雀朝饋後拜三公名標青史

왕상은던나라낭야사람이니일즉어미를려히  
고게모쥬시스랑티아니흐여저로참소흐니일  
로말미암아아빅게스랑을일허미양마구를츠  
라흐되상이더옥공순흐더라부외병이이시매  
오시씩를그르디아니흐고탕약을बाट드러친히  
맛보고어미산고기를먹고저흐디날이치위물

이 어릿논 디라 상이 오 슬 벗고 장 초어 림을 새 처  
고 기를 잠으 려 흥 더 너 어 림이 흘 연 스 스 로 푸 러  
더 며 너 어 들이 썩 여 나 더 라 어 미 또 누 른 새 적 을  
먹 고 져 흥 니 누 른 새 수 십 이 그 집 으 로 논 라 드 러  
오 고 어 미 상 으 로 흥 여 곰 실 과 남 글 디 희 라 흥 니  
미 양 브 란 블 고 비 오 면 상 이 남 글 안 고 우 더 라 어  
미 죽 어 거 상 흘 시 의 휘 흥 야 병 들 고 여 외 여 막 대  
를 집 흥 후 에 너 러 나 더 라 후 에 벼 슬 흥 여 삼 공 에  
너 러 나 라



許孜埋獸  
晉



五命丁  
卷一  
孝子

許孜東陽人年二十師事豫章太守孔沖受學還鄉里沖亡孜制服三年俄而二親歿柴毀骨立柱而能起建墓於縣之東山躬自負土不受鄉人之助每一悲號鳥獸翔集孜獨守墓所列植松栢互五六里有鹿犯所種松孜悲歎曰鹿獨不念我乎明日鹿為猛獸所殺致於所犯松下孜悵惋不已為埋隧側自後樹木滋茂孜乃立宅墓次事亡如存邑人號其居為孝順里

詩孝事雙親義事師此心應只有天知辛勤營墓頻哀慟鳥獸徊翔亦愴悲 墓前松栢已蒼蒼鹿

本無知遂觸傷一日戕生依樹下鬼神應使孝心  
彰

贊許孜孝恭好學有立及喪其親柴毀而泣負土  
東山鳥獸翔集人之見之能不鳥邑

허즈는딘나라동양사람이니나히이십에예장  
태슈공충을스승하야비호다가향니에도라왔  
더니충이죽으매삼년을거상하고이우고부되  
다죽으니의혜하여췌드러나막대를잡고야능  
히나러나고무덤을경영할시몸소흙을지고미  
은사람의돕는거슬밭디아니하더라미양슬피

브르지디면새짐싱이느라와못고지홀로무덤  
을덕희여송빅을버려심거오류리의새첫더니  
사슴이심근솔을생흥이거늘지슬피탄식흥여  
곧오디사슴은홀로날을넘녀티아니흥는다잇  
뜻늘사슴이범의죽인배되여그솔아래두엇거  
늘지창연흥고슬퍼흥기를마디아니흥여무덤  
길것히무드니그후로남기점점성흥는다라지  
무덤아래집을짓고죽은어버이섬기기를사너  
곳티흥니고을사름이그사논티를일쿠르디효  
순리라흥더라

王延躍魚

晉



王延西河人九歲喪母泣血三年幾至滅性每至忌日則悲啼至旬繼母卜氏遇之無道恆以蒲穰及敗麻頭與延貯衣延知而不言事母彌謹卜氏嘗盛冬思生魚使延求而不獲杖之流血延尋汾叩凌而哭忽有一魚長五尺踊出冰上取以進母食之積日不盡於是心悟撫延如己生延事親色養夏則扇枕席冬則以身溫被隆冬盛寒身無全衣而親極滋味父母終廬於墓側

詩孝道能敦在稚年良心一點出天然三年泣血應堪憫忌月悲啼更可憐 繼母相看性不慈心

存孝敬未曾衰汾濱哀哭魚隨躍此意皇天后土  
知

왕연은 딴 나라 셔 하사 롬이니 구세에 어미를 여  
희고 삼년을 피눈물을 흘려 거의 죽기의 니르고  
미양제 날에 다드르 면슬 피울기를 열흘에 니르  
더라 계모복시 무도히 디점하여 미양부들 품과  
씩과 삼머리로 연의 오시 두어 주니 연이 알오디  
말을 아나 흥고 어미 섬기기 를 더옥 공근 흥더라  
복시 일즉 김흔겨 올에 산고기 를 먹고 저 흥여 연  
으로 흥여 곰구 흥여 었디 못 흥니 터셔 피 흐르느

디라연이 물에 가어 몸을 두드리며 우니 홀연 흐  
고기 길히 다스자히나 흥여어름우히 섞여 나거  
늘가져다가 드리니 어미 여러 날을 먹으되 진티  
아니 흥는 디라이에 믿음에 씨드라연을 사랑호  
물기 출스티 흥더라연 이어버이 룰지 성으로 섬  
겨여름이면 벼개와 자리에 부치딜 흥며겨올이  
면몸으로 버니 불을 드스 흥게 흥고 흥동성한에  
몸에 흥성 흥오시 업스 되어 버이 흥맛도 흥음식  
이 흥 흥고 부외 죽으매 무덤 짓히 녀막 흥나라



楊香搃虎

南北朝宋



楊香南鄉縣楊豐女也隨父田間穫粟豐為虎所噬  
香年甫十四手無寸刃直搯虎頸豐因獲免太守孟  
肇之賜資穀旌其門閭焉

詩父遭虎噬愴心顏命在當時頃刻間虎頸搯持  
寧顧死致令嚴父得生還 幼齡體弱氣軒昂父  
命能令虎不傷青史尚畱名姓在至今誰不道楊  
香

양향은송나라남향고을양풍의딸이니아비를  
살와밧히셔곡식을뵈다가아비범의게물니이  
니이때에향의나히겨요십스세라손에쥌고만

늘이업스니바로범의게드라드리목을즈르쥼  
며범이노하브리니아비사라난디라원이듯고  
지름과곡식을주고정문흐니라

潘綜救父

南北朝宋



潘綜吳興人孫恩之亂妖黨攻破村邑綜與父驃共  
走避賊驃年老行遲賊轉逼驃驃語綜曰我不能去  
汝走可脫幸勿俱死驃困乏坐地綜迎賊叩頭曰父  
年老乞賜生命賊至驃亦請曰兒年少能走爲我不  
去我不惜死乞活此兒賊因斫驃綜抱父於腹下賊  
斫綜頭面凡四創綜已悶絕有一賊來語衆曰此兒  
以死救父殺孝子不祥賊乃止父子並得免元嘉四  
年有司奏改其里爲純孝蠲租布三世

**詩**避難何堪喪亂餘干戈擾擾遍村墟不逢旁寇  
能開釋父子當時死盜區 亂離重遇太平年三

世公租已盡蠲聞道吳興存舊業里名純孝至今傳

반종은 송나라 오흥사름이니 손은 도적의 일 의난

흠이라

에 적당이 고을을 터파 하니 종이 아버지 표를 드리  
고 흥까지로도라나도 적을 피할 시 표의 나히늘  
어흥되더디니 도적이 점점 표를 핏박 흥대피종  
드려닐오디나능히가디못흥거니와너는드  
르면가히버서날디라다흥이다죽디말을디너  
라피곤핍흥여사히안즈니 종이 도적을 마자마  
리를 조아골오디 아버지 나히늘으니 빌건대 살리

쇼셔도적이 다드르니 피쇼호청호여 곧 오디 아  
히나히점어능히드를거시로디날을위호여가  
디아니호니나눈죽기를앗기디아니호느니빌  
건대이야히를살리라도적이인호여표를색으  
니종이야비를안고업된대도적이종의마리와  
늦출색어네곳이상호여귀절호옛더니호도적  
이와셔모든도적드러닐오디이야히죽기로써  
아비를구호니효조를죽이면상셔롭디아니너  
라도적이이에감동호여노호니부지다죽기를  
면호니라원가

송문테대  
년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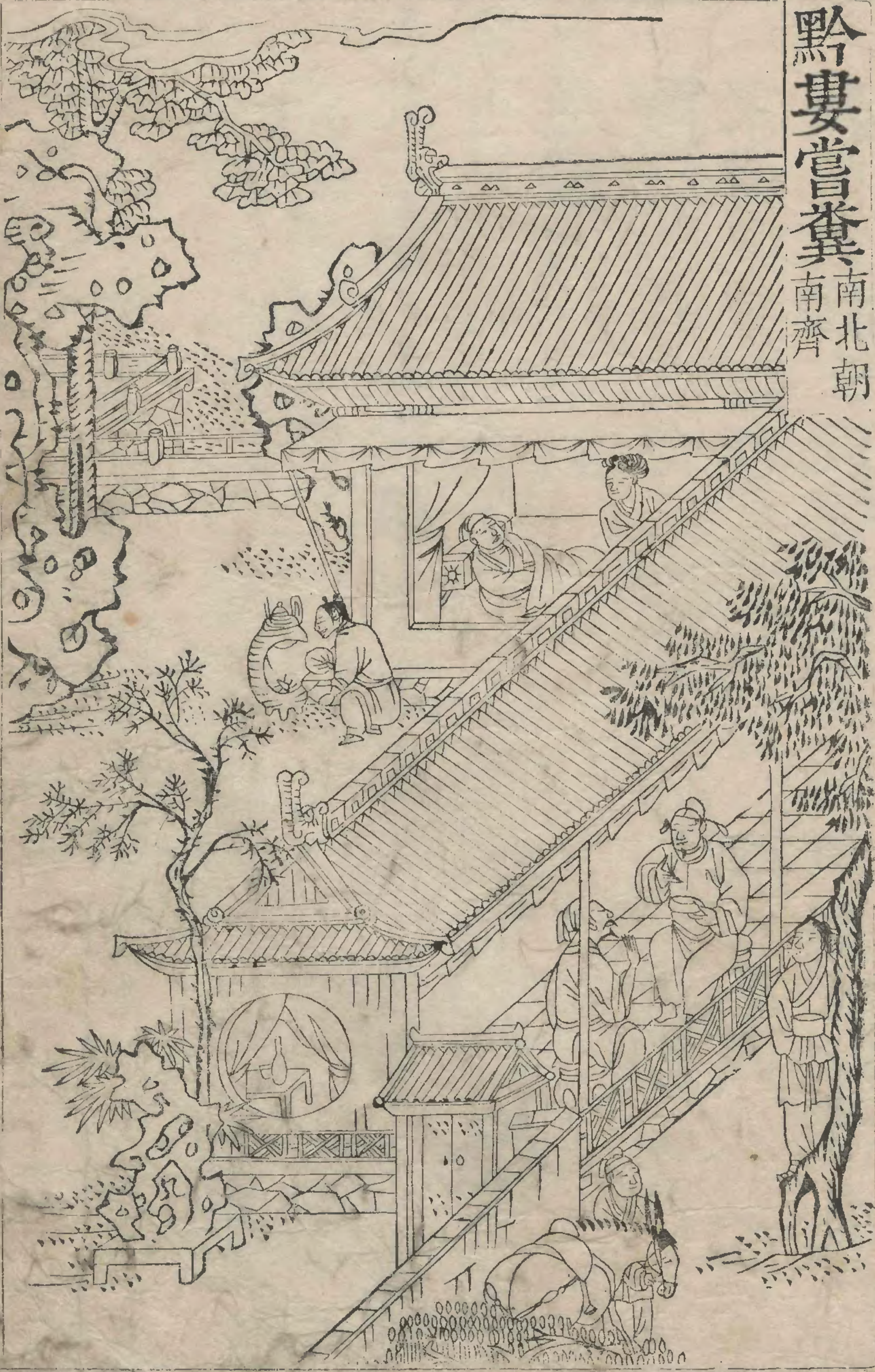
수년에유시주문호여그

모은 일음을 고쳐 순요촌이라 하고 삼덕을 부호  
한다



黔婁嘗糞

南北朝  
南齊



五作不置區  
庾黔婁新野人爲孱陵令到縣未旬父易在家遘疾  
黔婁忽心驚舉身流汗卽日棄官還家家人悉驚其  
忽至時易疾始二日醫云欲知差劇但嘗糞甜苦易  
泄痢黔婁輒取嘗之味轉甜滑心愈憂苦至夕每稽  
顙北辰求以身代俄聞空中有聲曰尊君壽命盡不  
復可延汝誠禱旣至故得至月末晦而易亡黔婁居  
喪過禮廬於墓側

詩孱陵作令忽心驚棄職還家父疾嬰消息何曾  
來遠道感通應是在純誠 願將身殞代嚴親稽  
顙中天禱北辰便覺有聲傳報應從來孝念感神

人

贊在家父病庾令驚汗棄官忽歸人恠且歎嘗糞  
而甜不暇自愛稽顙北辰乞身以代

유검누는제나라신야사름이니잔릉녕을후여  
고을에니르런디열홀이못후여셔아비집의셔  
병드러터니검누홀연口음이놀나와온몸의쌈  
이흐르거늘즉일에벼슬을브리고집의도라오  
니집사름이다홀연이니르물놀나터라이새에  
아비병드런디비로소이틀이라의원이닐오디  
병의경등을알고져후거든그똥이돌고쓰물맛

보라아비리변을보거늘감취맛보니점점들고  
할흔디라口음에더옥근심하여밤이면미양부  
신<sup>부두성</sup>이라에마리조아몸으로디신평물원하니이  
음하여공동으로셔웨여닐오디존군의슈명이  
진하여다시버더가디못할거시로디네정성으  
로빌미지극하고로이돌서디는살리라하니  
금음이되매아비죽으니감취거상하기를네에  
넘게하고무덤것히녀막하니라

叔謙訪藥

南北朝  
南齊



解叔謙鴈門人母有疾叔謙夜於庭中稽顙祈福聞  
空中語云此病得丁公藤爲酒便差卽訪醫及本草  
皆無識者乃求訪至宜都郡遙見山中一老公伐木  
問其所用答曰此丁公藤療風尤驗叔謙便拜伏流  
涕具言來意老公愴然以四段與之并示以漬酒法  
叔謙受之顧視此人已忽不見依法爲酒母病卽差  
詩母疾求醫日夜憂仰天稽顙苦祈求神明時感  
誠心切說與良方治病由 叔謙孝感豈徒然應  
有精誠達上天忽得丁公藤漬酒卽令母病頓安

痊

히속검은제나라안문사름이니어미병이이시  
매속검이밤마다들가온대마리룰조아병낫기  
를비더니공등에서웨여닐오디이병이덩공등  
약제으로술을비저먹으면나으리라하거늘의  
원드러못고본초<sub>약명기록  
호척이라</sub>에츠즈되다알니업는  
디라두로방문하여의도라하는사희니르러먼  
니브라보니산등의흔리는사름이남글버히거  
늘그늘디를므른대답하디이닌덩공등이니풍  
병에신탄하하나라속검이문득절하고업디여눈  
믈을흘리며온뜻을즈세히너르니늘은사름이

감동하여 네 줄기를 주며 술 빛는 법을 다 마르치  
거늘 속검이 밧고 도라보니 그 사람이 홀연 간디  
업디라 법대로 술을 민드라 드리니 병이 나으니  
라



吉粉代父

南北朝梁



吉翬馮翊人父爲原鄉令爲吏所誣逮詣廷尉翬年十五號泣衢路祈請公卿見者隕涕其父理雖清白而恥爲吏訊虛自引咎罪當大辟翬搗登聞鼓乞代父命武帝異之以其童幼疑受教於人勅廷尉蔡法度脅誘取欵法度盛陳徽纆厲色問曰爾求代父死勅已相許然刀鉅至劇審能死不若有悔異亦相聽許對曰囚雖蒙弱豈不知死可畏不忍見父極刑所以殉身不測翬初見囚獄掾依法桎梏法度命脫二械翬弗聽曰死囚豈可減乎法度以聞帝乃宥其父揚州中正張仄薦翬孝行勅太常旌舉

詩父爲遭誣陷極刑誓將身代愬中情誰知天鑑  
非玄遠父子俱全表孝誠 堪羨兒童有至情哀  
號代父感朝廷當年孝行蒙旌舉遂使千秋有令  
名

길분은량나라풍익사람이니아비원향을느

엇더니아전의무함흔배되어잠히여덩위

범마튼  
마은이

라에나아갈시이새에분의나히십오세라길거

리에우지디며공경의게빌고청흐니보느사람

이다눈물을흘리더라그아비비록청빅흐나옥

니와디변흐를붓그러흐여스스로죄를당흐야

죽게 되었는디라분이 등문고를려아비명을디  
신하여디라하니련지괴이히너기되어린아히  
라하여님의게마르치물바든가의심하여텡위  
채법도를명하여저히며달내여동정을시험하  
라하니법되형벌괴구를성히베플고노스빗출식  
식이하여무려존오디네아비디신하여죽기를  
원하니이피명하여샤하하여시나칼과톱이심히  
두려오니혜아리건대능히죽을다만일뉘우초  
미이셔도또흔네원대로하리라분이존오디죄  
인이비록어리나엇디죽기두려오물모로리오

마는 차마 아비극형호를보디 못하여 불측호디  
죽으려호노라 분이 처음에 갓치 이때 옥관원이  
의법히 칼을메오니 법되명하여 칼을벗기라호  
대분이듯디아니하여 곧오디 죽을죄인이엇디  
칼을버스리오 법되이 말노 님군기 알외여 그아  
비를노 핫더니 원이 분의 효행을 천거하여 벼슬  
하이니라

不害捧屍

南北朝陳



殷不害陳郡人居父憂過禮有弟五人皆幼不害事  
老母養小弟勤劇無所不至簡文帝賜其母蔡氏錦  
裙襦氈席被褥魏平江陵失母所在時甚寒雪凍死  
者填滿溝壑不害行哭求屍見死人卽投身捧視舉  
體凍僵水漿不入口者七日始得母屍哭輒氣絕行  
路流涕蔬食布衣枯槁骨立弟不佞亦至孝方母死  
時道路隔絕不得奔赴四載之中晝夜號泣居處飲  
食常爲居喪之禮及母喪柩歸身自負土手植松柏  
每歲時伏臘必三日不食

**詩**百行由來孝最先人心盡孝理當然慈親不幸

填溝壑七日哀求重可憐 父母劬勞竟莫酬  
昊天罔極思悠悠殷家兄弟能行孝萬古揚名永不  
休

은불해는진나라진군사름이니아비죽으니거  
상을네에넘게하고아이다스시이시되다어린  
디라불해노모를섬기며어린아온양혹하여근  
되지극하니련지거특이너겨그어미를비단의  
복과침석을주시다후의병난을만나어미를일  
흐니그새심히침고눈이빠혀얼어죽는사름이  
굴헝에다득하디라불해울고든니며신테를구



흐시죽엄마나붓드러보고슈량을먹디아니하  
연디나레만의비로소어미신례를엇고통곡하  
여귀절하니길사름이다눈물을흘리고누물밥  
과보오스로몸이어위여쇄드러나더라아으불  
령이또호호행이지극하여어미죽을쇄의길히  
막히여분상을못하니네히를듀야로울며거쳐  
와음식을상인곳티하더니어미상귀도라오매  
몸소흙을져못고송벽을심으며세시와복납의  
사흙을밥먹디아니하더라

王崇止電

南北朝  
北魏



王崇雍丘人母亡居喪哀毀頽瘠杖而後起鬢髮墮  
落廬於殯所晝夜哭泣鳩鵲羣至有一小鳥素質黑  
眸形大於雀栖於崇廬朝夕不去母服初闋復丁父  
憂悲毀過禮是年夏風雹所經處禽獸暴死草木摧  
折至崇田畔風雹便止禾麥十頃竟無損落及過崇  
地風雹如初咸稱至行所感崇雖除服仍居墓側室  
前生草一根莖葉甚茂人莫能識至冬復有鳥巢崇  
屋乳養三子馴而不驚事聞詔旌表門閭

詩孝道由來動鬼神王崇至行出天真珍禽繞屋  
能馴擾異草當堦別有春風雹摧殘物盡僵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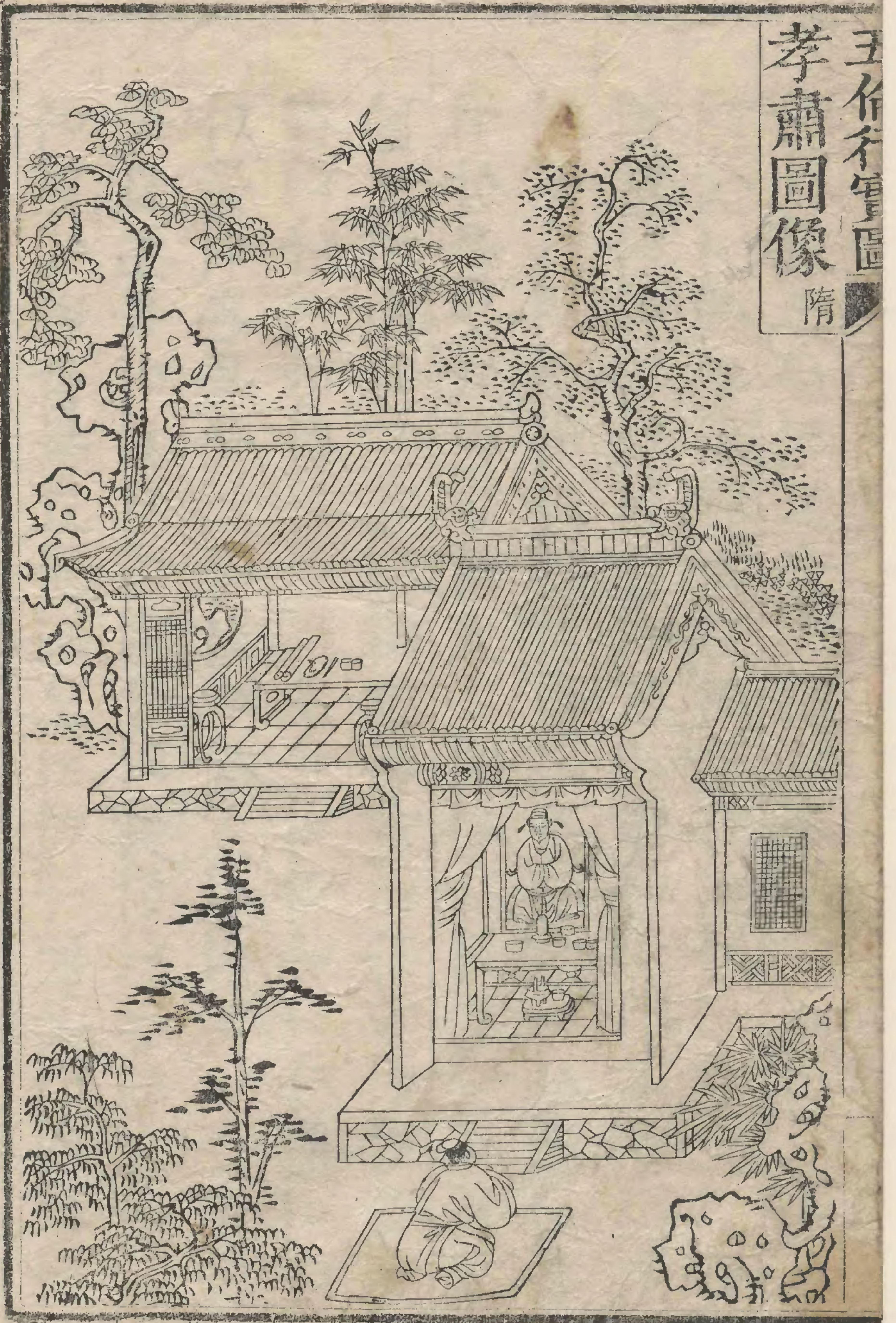
家禾麥豈曾傷自緣孝行通天地賴有靈柩爲顯彰

왕송은위나라옹구사름이니어미죽어거상홀  
시의혜호여몸이므르니막대를잡은후의니러  
나고귀밋히털이다싸디고빈소에녀막호여듀  
야로곡음호니새즘싱이모다니르고그둥에호  
저근새이셔몸이희고눈이검으며형상이참새  
에셔논큰디라송의녀막의깃드려도석의가디  
아니호더니어미거상을처음으로못고다시아  
빅상소를만나의회호기네에넘게호더라이히

여름에 바람 불고 물의 오니 더나는 곳의 짐승이  
죽고 초목이 깎거 디 되 숭의 밧히니 르러는 바람  
과 물의 문득 굿쳐 곡식이 상호미 업더니 숭의 밧  
출디 나며 바람과 물의 도로 나니 사름이다  
닐오디 지극 호호성의 감동 호배라 호터라 숭이  
거상을 못 고인 호여 묘 측에 서사니 집 알 피 풀 호  
퍼귀나 셔 줄기와 님히 심히 무성 호니 사름이 능  
히 알니 업더니 겨울의 쏘 새 호나히 집 우히 깃드  
려 샷기 세 흘치니 길드러 놀나 디아니 호는 디라  
나라히 드르시고 숭의 집 에 정문 호시다

孝肅圖像

隋



徐孝肅汲郡人早孤不識父及長問父形貌於其母  
因求畫工圖之置之廟而定省焉朔望則享之事母  
數十年家人未見其有忿恚之色及母老疾孝肅親  
易燥濕憂悴數年見者無不悲悼母終茹蔬飲水盛  
冬單裘毀瘠骨立祖父母父母墓皆負土成墳廬墓  
者四十餘年被髮徒跣至於終身

**詩**早孤不識父容儀圖像依依問母慈構廟晨昏  
能定省殷勤祭享似存時 母存愛敬歿悲辛廬  
墓曾經四十春兩世墳塋躬負土跣行被髮竟終  
身

서효숙은 슈나라 급군사람이라 어려셔 아버지 죽  
으니 아버지 얼골을 아디 못흐야 주라매 그 어머니 등  
러 아버지 얼골을 무려 화원의게 그려내여 스당에  
두어 도석으로 뵈옵고 삭망으로 제 흐며 어머니 섬  
견디 수십년에 집사람이 그 성내논 빛출보디 못  
흐더 너어 미늘고 병들매 효숙이 친히 므른디와  
저즌디를 밧고와 누이며 수년을 근심흐여 여의  
기심흐니 보는 사람이 다 슬허흐고 어머니 죽으매  
능물과 물만 먹고 김은겨을의 훗최복을 남고 휘  
척흐여 새 드러나고 조부모와 부모의 무덤을 다



흠을저다가일우고무덤것히녀막하여스십여  
년을마리풀고밭버서종신사디니르니라

盧操順母

隋



盧操河東人九歲通孝經論語事繼母張氏至孝張  
生三子溺愛之命操常執勤主炊操服勤不倦張遣  
其子讀書命操策驢隨之操卽執鞭引繩如僮僕三  
弟嗜酒縱佚抵忤於人致人踵門詬及其母操卽涕  
泣拜而解之惡少年曰不謂三賊有此令兄相與拜  
操而去繼母亡操訓養三弟恩愛過於平日服母喪  
哀毀骨立每夕有狐狸羅列左右將朝乃去後調臨  
渙縣尉佐政寬仁官舍設几筵以祀父母出告反面  
過其庭鞠躬如也每朝讀孝經一遍然後視事讀至  
喪親章輒號咽不勝

詩殷勤行孝順親心委曲應知敬愛深執爨驅驢  
能友弟里中惡少亦加欽 憶昔居廬淚滿巾一  
爲縣尉尙寬仁凡筵設祭敦時祀朝夕哀悲更愴

神

노조는슈나라하동사름이니구세에효경과논  
어를알고계모당시를지효로섬기더니당시세  
아들을나하편벽히사랑하고조로하여곰밥을  
지이니죄조곰도게얼리아니하고그아들이글  
너으라갈시조로하여곰나귀를몰니이니죄채  
를잡고곳비를잇그러노복스티하고세아이술

을즐겨노니다가사름과드토니그사름이집의  
사라와어미를욕흥거늘죄을며절흥여말리니  
악소년이큰오디세놈이엇디이런어딘형을두  
엇는고흥고서로더브리조의게절흥고가더라  
계되죽으매죄세아올마르치고길러사랑흥미  
상시에디난디라어미거상을납고의혜흥여새  
드러나니저녁마다여호와숨이좌우의라렬흥  
엇다가셀만흥면가더라후에원을흥여덩시관  
인흥고관샤에궤연을베프러부모를제흥며나  
갈제고흥고도라오면뵈오며그쓸에디날제국

궁하고 아춤이면 효경을 한번씩은 후에 공소를

행되 상친장

효경에 거상  
하는 글이라

의니 르러 님은 두오 열방

여견디디 못하더라

孟熙得金  
蜀五代



孟熙販果實養親承顏順志不憚苦辛其父常云我  
雖貧養得一曾參及父亡絕漿哀號幾至滅性布苦  
于地寢處其上三年不食鹽酪遠近歎服因見鼠掘  
地得黃金數千兩因成巨富

詩家貧負販養嚴親承順何嘗憚苦辛歿後居喪  
能盡禮行同曾子異常人 掘鼠何由遽得金孝  
親於此感天心一時不但家能富贏得香名說到

今

밍희는 속사름이니 과실을 프라 어버이 를 봉양  
호더는 빛찰바드며 빛을 순히 하여 신고 할새



리디 아니하니 그 아버미 양닐 오디 내 비록 가난  
하나 공저례지니지 극흔효지라 흥증슴 을 길넛 노라 흥더니 아버  
죽으매 입에 슈당을 쓴 코슬 피블으 지져 거의 죽  
게 되고 거적을 싸히 펴고 그 우히 거쳐 흥여 삼년  
을 염장을 먹디 아니 하니 원근 사름이 탄복 흥더  
니 쥐를 보고 싸 흘프다가 황금수 천냥을 어더인  
흥여 거뵈되니라

徐積篤行 宋



徐積楚州人三歲父死朝朝求之甚哀母使讀孝經  
輒淚落不能止事母至孝朝夕冠帶定省應舉入都  
不忍捨其親徒載而西登第舉首許安國率同年入  
拜且致百金爲壽謝而却之以父名石終身不用石  
器行遇石則避而不踐母亡悲慟嘔血廬墓三年雪  
夜伏墓側哭不絕音翰林學士呂溱過其墓聞之爲  
泣下曰使鬼神有知亦垂涕也甘露歲降兆域杏兩  
枝合爲榦旣終喪不徹筵几起居饋獻如平生州以  
行聞詔賜粟帛元祐初爲楚州教授又轉和州防禦  
推官徽宗賜諡節孝處士

詩嬰孩亡父日哀求感切中情涕泗流事母更能  
躬孝養當時名士復誰儔 致養居喪總盡精神  
明默贊顯祥禎重膺朝命榮褒寵今古人傳節孝  
名

서적은 송나라 초쥬사름이니 삼세에 아버죽으  
니 아참마다 츠즈며 심히 설워호고 어미호여곰  
효경을 넓히면 문득 눈물을 굿치디 아니호고 어  
미를 지효로 섬겨 관과 석를 마초아도 석으로 문  
안호며 과거보라셔 울을 시츠마어미를 셔나디  
못호여 호까지로 실어갓더니 급제호매 장원허

안국이동년

동방과거호  
사름이라

을거느리고드러와뵈고

빅금을주어헌슈하라호대샤례호여밭디아니  
하니라아비일흙이돌석지라호여종신토록돌  
그르솔아니쓰고길히셔돌을만나면피호고뵈  
디아니호며어미죽으매비통호여피를도호고  
삼년을녀묘호여눈오느밤이면묘측에업디여  
울기를굿치디아니하니한림호스녀전이그무  
덤을디나다가듯고눈물을느리와곧오디귀신  
이아름이이실던대또호눈물을올지우리라호터  
라든이솔이히마다무덤알피느리고솔고나모

두가지 합하여 흥등결이 되엇더라 거상을 못츠  
되게 연을 것디 아니하고 문안과 음식드리기를  
상시 굿티 하니 원이 효행으로 주문흥대곡식과  
비단을 주시고 후에 초쥬교슈를 하고 또 화쥬방  
어쥬관벼슬로 올므니라 휘종황태시 호를 주셔  
절효쳐시라 하니라

吳二免禍  
宋



五倫全圖  
吳二臨川小民事母至孝一夕有神見夢曰汝明日  
午刻當爲雷擊死吳以老母在堂乞救護神曰受命  
於天不可免也吳恐其母凌晨具饌以進白云將  
他適請暫詣妹家母不許俄黑雲起日中天地冥暗  
雷聲闐闐然吳益慮驚母趣使閉戶自出野田以待  
頃之雲氣廓開吳幸免禍亟歸拊其母猶疑神言不  
實未敢以告是夜復夢神曰汝至孝感天已宥宿惡  
宜加敬事

詩宿譴應知合殞生夢中神報甚分明凌晨具饌  
還供母欲適他家恐母驚 雷霆震怒忽轟闐待



罰從容出野田雲散倏然天日霽只緣事母孝心  
虔

오이논송나라님천벽성이라어미를롤지효로섬  
기러나흐로져너은신령이숨에뵈여골오디네  
닉일오시면되녕에마자죽으리라오이늙은어  
미이시니구호호쇼셔고빈대신령이골오디  
하늘귀명을받조와시니면티못호리라오이그  
어미놀날가두려위호여새베음식을초아드  
리고슬오디쟁춧다른디나가니청컨대잠간누  
의집의가쇼셔어미허티아니호터나이우고검

은구름이 내려나며 희가 나즈는 흥여 셔련디 어둡  
고 우레 소리 단동 흥니 오이 더 옥어 미 놀 날 가 념  
너 흥여 밤비 문을 닷고 스스로 들 밧히 나가 기드  
리 더 나이 옥고 구름이 확연히 열리 느 디라 오이  
다 흥이 화를 면 흥고 급히 도라 와 어 미 를 어 르 문  
지 고 오 히 려 신 령 의 말 이 맛 디 아 니 물 의 심 흥여  
감 히 고 티 못 흥 더 나 이 날 밤 에 쏘 썸 을 썬 니 신 령  
이 큰 오 더 네 지 극 흥 효 성 이 하 늘 귀 감 동 흥 여 이  
의 전 죄 를 사 흥 니 맛 당 이 더 옥 공 경 흥 여 섬 기 라  
흥 더 라

王薦益壽元



王薦福寧人父嘗病甚薦夜禱於天願減已年益父  
壽父絕而復甦告其友曰適有神人黃衣紅帕首恍  
惚語我曰汝子孝上帝命錫汝十二齡疾遂愈後果  
十二年而卒母沈氏病渴語薦曰得瓜以啖我渴可  
止時冬月求於鄉不得行至深奧嶺值大雪薦避雪  
樹下思母病仰天而哭忽見巖石間青蔓離披有二  
瓜焉因摘歸奉母母食之渴頓止

詩父病精虔禱上天願將已筭益親年孝心感格  
天心順恍惚神將帝命傳 母渴思瓜正歲寒那  
堪山路雪漫漫雙瓜忽產空巖裏歸奉慈親痼疾

安

왕천은원나라복녕사람이니 아버지일즉병이등  
흐매천이밤에하늘귀비되원컨대내나흘감흐  
여아버쉬를더흐여디이다흐더니아버귀절흐  
엇다가다시씨여그벗드려닐러존오디앗가신  
인이누른옷납고블근건쓰고황홀이날드려닐  
오디네아들이효행이이시니상테명흐샤네나  
열들을더흐노라흐더라흐고병이드디여나아  
그후열두히만의죽으니라어미심시쇼갈병이  
이셔천드려닐오디외를먹으면내갈병이나으

리라 흥되 이새겨 올이라 모을에 구 흥되 엇디 못  
흥고 흥 흥여 심오령이라 흥는 싸히니 르러 대 설  
을 만나 천이나 모아 래셔 눈을 피 흥며 어의 병을  
싱각 흥고 하늘을 우러러 우더니 흘연 바 회스이  
를보니 프른너 출이 얼 컷는 디외 들히 잇거 늘싸  
다가 어의게 드리니 어미 먹고 갈 병이 즉시 나으  
니라

劉氏孝姑

明皇



五伯行實圖  
劉氏新樂人韓太初妻太初洪武七年遷和州挈家  
行劉事姑寧氏甚謹姑在道遇疾劉刺臂血和湯以  
進姑疾愈比至和州太初卒劉種蔬以給食養姑尤  
謹又二年姑患風不能起時盛暑劉晝夜侍側驅蚊  
蠅姑體腐蛆生又爲齧蛆蛆不復生及姑病篤齧劉  
指與之訣劉號呼神明割股肉和粥以進姑復甦越  
月而卒劉殯舍側欲還葬舅墓哀號凡五年不能歸  
事聞 太祖皇帝遣中使賜劉衣一襲鈔二十錠官  
爲送喪歸葬旌門復家

詩刺血和湯姑疾甦夫亡無食種園蔬蛆生姑體



偏能齧盛夏蚊蠅更爲驅 朝廷特爲返姑喪始  
得還鄉葬舅傍旌表門閭兼寵賚古來孝婦實無  
雙

뉴시논 황명신락사름이오한래초의안히니

래최홍무 명래조대  
년호라 칠년에화주에귀향갈시가속

을드리고가더니뉴시논어미섬기물심히공근  
흐디라식어미길히셔병들거늘풀을질러피내  
여약에섯거드리니병이나으니라화주에니르  
러래최죽으니뉴시논물을심거먹으며식어미  
봉양호를더욱공경흐더니또두히만에식어미

풍병드러능히니디못흐니이새극열이라뉴시  
듀야로갓히되셔모기와푸리를늘리고식어미  
몸이석어귀덕이나거늘또입으로귀덕이를새  
니다시나디아니흐터라식어미병이둥흐야뉴  
시의손가락을씨무러영결흐니뉴시신명을보  
르지디며다리슬을베혀죽에타드리니다시살  
앗다가두들만에죽으니뉴시집갓히빈소흐고  
식부의무덤에도라가장소흐려흐여슬피우려  
다스히되되능히도라가디못흐터니 태조황  
테이일을드르시고둥스를보내여뉴시롤의복

일습과은이십녕을주시고관가로셔상행은출  
혀보내여도라와장스하고정문하고복호이다

婁伯捕虎  
高麗



崔婁伯水原吏尙翥之子尙翥獵爲虎所害婁伯時  
年十五欲捕虎母止之婁伯曰父讎可不報乎卽荷  
斧跡虎虎旣食飽臥婁伯直前叱虎曰汝害吾父吾  
當食汝虎乃掉尾俛伏遽斫而剝其腹取父骸肉安  
於器納虎肉於甕埋川中葬父洪法山西廬墓一日  
假寐其父來詠詩云披榛到孝子廬情多感淚無窮  
負土日加塚上知音明月清風生則養死則守誰謂  
孝無始終詠訖遂不見服闋取虎肉盡食之

詩崔父山中獵兔狐却將肌肉餒於菟當時不有  
兒郎孝誰得揮斤斫虎顱 捕虎償冤最可憐山

西廬墓又三年小詞來誦眞非夢端爲哀誠徹九

泉

최누빅은고려적슈원아전상자의아들이니상  
재산영흥다가범의게해훈배되니이쎄누빅의  
나히십오세라범을잡고져흥거늘어미말린대  
누빅이곧오디아빅원슈를엇디아니감흐리오  
흥고즉시돛기를메고범의자최를쎄오니범이  
이의다먹고빅불러누엇거늘누빅이바로알피  
드라드러범을썩더저곧오디네내아비를해쳐  
시내내너를먹으리라범이쎄리를치고업디거

늘듯괴로색어비를헤티고아비색와손을내여  
그러시담고범의고기를항에녀허물가온대못  
고아비를홍법산셔편에장스고녀묘하더너  
홀는숨을쉬니그아비와셔글을읽허골오디가  
시덤블을헤티고효주의집에니르니정이늦기  
미만흐매눈물이무궁하도다흠을져셔날마다  
무덤애더하니지음은명월청풍이로다사라셔  
봉양하고죽으매덕희니누닐오디회시종이업  
다하리오읽기를다하매문득되다아니하더라  
거상을막치매범의고기를내여다먹으니라

自強伏塚朝本





金自強星州人年幼喪父奉母承順無闕母喪不用  
浮屠一依家禮比葬遷父合葬廬墓三年服闋又欲  
爲父更居三年妻黨牽引登途仍焚其廬自強顧瞻  
烟光呼天擗地力排還歸伏塚三日不起姻戚感其  
孝誠爲復結廬以與之自強又居三年如初

詩髫年父逝奉慈闈順色承顏罔或違喪盡禮儀  
仍合葬守墳三載淚渾衣 終喪復爲父居廬苦

被姻親強引裾顧視烟光號擗地至誠能感得如

初

김노강은 본도성주사람이 나어려아비죽고

어미를 섬기되 빛을 승수 하여 그릇을 미 업터니  
 어미 죽으매 부모 동양의 법이라 를 쓰디 아니 하고 혼을 죽  
 티가 레를 조차 그 아비와 합장 하고 삼년을 녀묘  
 하여 거상을 모친매 또 아비를 위하여 삼년을 다  
 시이시려 하여 늘쳐 족들이 잇글고 길로 나가 인  
 하여 그 녀막을 불지르니 강이 낮 빛출 바라 보  
 고 하늘을 부르며 싸흔 두드리며 힘써 물너치고  
 도로가 무덤알 피사흔을 업터니 디아니 하니  
 쳐 족들이 그 효성을 감동 하여 다시 녀막을 지어  
 주니 강이 또 삼년을 이시되 처음 또 터라

石珍斷指朝本



五倫行實圖  
俞石珍高山縣吏也父天乙得惡疾每日一發發則氣絕人不忍見石珍日夜侍側無懈號泣于天廣求醫藥人言生人之骨和血而飲則可愈石珍卽斷左手無名指依言以進其病卽瘳

詩父患沉痾久未痊兒心悶絕叫蒼天誰知一粒靈丹劑却在無名指細研父子天倫萬古同奈隨王化有汗隆觀圖每向高風挹藉甚名聲永不

窮

유석진은 본도고산현아전이니 아버련을이 악질을어더미일에병이발함야귀설함니사름

이 참마 보디 못흐는디라 석단이 듀야로 곱히 뉘  
셔하 놀귀 브르 지디며 두로의 약을 구흐니 사람  
이 날 오디 산 사람의 썩을 피에 섯거 먹으면 가히  
나으리라 흐대 석단이 즉시 왼손 무명지를 쓴 허  
그 말대로 흐여 나오니 병이 즉시 나으니라

殷保感鳥

朝本



尹殷保徐隲知禮縣人俱學於同縣知宜州事張志道一日相謂曰人生於三事之如一况吾師無子可養乎得異味輒饋每遇良辰必具酒饌如事父然張歿二人請廬墓於其親親憐而聽之乃玄冠腰經居墓傍躬爨供奠尹父嘗病卽歸奉藥衣不解帶父愈令復歸廬月餘尹感異夢亟歸則父果以夢夕疾作未旬而死尹晨夕號哭不離喪側旣葬廬父墳一日飄風暴起失案上香盒數月有烏銜物飛來置塋前人就視之卽所失香盒也至朔望猶奠張墳徐亦終三年宣德壬子事聞殷保隲並命旌門拜官

詩孔門廬墓載遺編師道千年廢不傳誰料窮鄉  
初學輩種楷腰經企前賢 一體而分性本真夢  
驚親瘡氣通神慈烏反哺能相感香盒銜來慰棘  
人

윤은보와셔즐은 본도지례현사름이니훈가  
지로그고을사름장지도의게글비호더니훈논  
서로닐오디스승은부모와훈가지니훈물며우  
리스승이주식이업소디라훈고도훈음식을어  
드면스승을먹이고명일을만나면쥬찬을마초  
아아비섬기듯훈더니장지되죽으며두사름이



그어버이게너묘호를청호대어버이어엇비너  
겨허호니이에제복으로스승의묘측에이셔몸  
소밥지어제뼌을밧드더니은뵈아비병들매즉  
시도라와탕약을밧드러오시셔롤그르디아니  
호고아비병이나은매은보로호여곰다시녀막  
의도라갓더니월여의은뵈고이호숨을쉬고설  
리도라오니아비과연숨쉬던날로병이들엇는  
디라열흘이못호여죽으니은뵈도석으로호곡  
호고상측을써나디아니호고장후의아비무덤  
의녀막호시호는급호브람이니러나상우희향

합을 일히터너 수월만 의가 마귀며 어솔물고 노  
라와 무덤알피두 거늘사름이 가보니 일히터던 향  
합이러라 삭망이면 오히려스 승의 무덤의 제  
고셔즐도 또 훈게셔 삼년을 밋차니 선덕  
라 임주에 상이 일을 드르시고 두사름을 다  
정문호고 벼슬호이시다

五倫行實圖卷第一

